

성년의 날, 이렇게 준비하세요

5월 달력에 새겨진 수많은 기념일 중 '성년의 날'은 그 존재감이 크지 않다. 자녀가 어엿한 어른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20세' 의젓한 어른으로



성인으로서 자심감 · 책임감 부여

5월 21일은 35회를 맞는 성년의 날이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날이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라고 해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관례(冠禮)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으나, 갈수록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전통 성년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최근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전통 성년례를 복원해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문화관광부가 1999년 정한 표준 성년식에 따르면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 삼가례(三加禮) 조례(醮禮)를 거쳐 성년선언을 한다.

20세기 중반까지 마을 단위로 축하 전통 의례 어른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여행 다니기'

부모와 함께 성년의 날 축하하세요

일생에 한 번 갖게 되는 성년의 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떻게 보내야 성년이 되는 자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방송(KBS)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해 보고 싶은 것'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행 다니기'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성년을 맞는 자녀가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 계획을 세워 보게 하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준비한 성년의 날 행사에 부모가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와 성균관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경희궁에서 35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전례원 총남지원은 21일 오후 2시 공원녹지사임소 체육관에서 만 20세를 맞는 청소년 250명을 초청, 축하 퍼포먼스와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성년을 맞는 지역 3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고,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줄 예정이다.



37. 일본 차산지

일본의 많은 차산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역은 교토와 시즈오카다. 교토는 역사적으로 차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는 주로 우지(宇治)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14세기 후반에 아사카가 3대 장군 요시미즈가 우지(宇治)를 중심으로 차나무가 전해졌다고 한다. 14세기 후반에 아사카가 3대 장군 요시미즈가 우지(宇治)를 중심으로 차나무가 전해졌다고 한다.

로 알려져 있다. 요코야마 개항 이후 차는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되어서 시즈오카 현의 각지에서 많은 다원이 조성되고 이 지역 차의 존재가 서서히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 밖에도 가고시마 현은 예부터 자생하는 차나무가 있다는 설이 있다. 사람들이 차나무 잎을 상처 치료에 이용하고, 무사들의 저택에 차나무를 울타리로 만들어 사용하였

개량종 '야부기다' 일본차의 70~80% 차지 타카바야시 켄조 제다 기계화 성공 생산 확대

망하자 장군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우지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다도(茶道)를 좋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지차는 명성을 유지해



마키노하라 다원(소화초기)

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고시마 현의 차는 서서히 일본 전국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지역은 기온이 따뜻하여 일본에서도 가장 일찍 생산되는 '빠른 차'가 생산된다.

전차(煎茶)를 만드는 방법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찻잎을 따서 솥에서 튀어 닳자리에서 손발로 비벼서 햇빛에 건조시켰으나 1738년 소엔은 제다법을 개량하여 차를 손으로 비비고 불로 건조시키는 등 차를 만드는 방법을 개량한다. 차를 만드는 방법이 개량되면서 일본 녹차 기술의 기초가 된다.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한옥문화원 강좌 18일부터

아파트를 한옥처럼 꾸며볼 순 없을까? 한옥문화원(원장 신영훈)은 5월 18일부터 강좌 '아파트를 한옥처럼'을 개최한다.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생활 공간인 아파트에 한옥의 장점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강좌는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www.youthexpo.net)가 6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우주체험, 로봇 및 미래교실체험, 미래주력체험 등의 체험교실이 열리는 것은 물론 청소년단체, 시설 등의 홍보, 폭력 추방운동, 취업진로지도, 여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여수령 기자

영인본 불교원서 보관본 보급안내

귀의 심보하옵니다. 책방 여시아문을 항상 이용해 주시는 스님,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불자님들의 곁에서 불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2004-8219 (담당 : 박원범)

Table with 4 columns: 도서명, 저자명, 보관수량, 가격. Lists various Buddhist scriptures and their prices.

경신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철야용맹 정진비법으로 운명을 바꿔 성공출세 운수대통대법회

Advertisement for a Buddhist seminar. Text describes the benefits of the 'Jingshin Dotoong' method, including career advancement and personal growth.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peakers.